

여고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이 외로움과 역량지각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Perceived Parenting Behaviors on Loneliness and
Perceived Competence among Female High School Students*

송민선(Min-Sun Song)¹⁾

박희현(Hui-Hyun Park)²⁾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cognize the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s as perceived by female high school students on their loneliness and perceived competence.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consisted of 301 female high school students.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by multi-regression analysis. The father and mother's behaviors, defined as inconsistency, intrusiveness, physical abuse and neglect, all- resulted in increased levels of loneliness amongst the subjects, and also negatively influenced their perceived competence. However, the parent's monitoring, reasoning and affection behaviors tended to reduced loneliness and perceived lack of competence. The father and mother's affection, when recognized as such by female adolescents, revealed itself to be a positive influence on their various areas of perceived competence. In conclusion, parenting behaviors may affect loneliness and perceived competence on the part of female adolescents during the ego-identity formation stage.

Key Words : 부모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 외로움(loneliness), 역량지각(perceived competence), 여고생(female high school student).

* 본 논문은 2011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 학술대회 구두 발표 논문임.

¹⁾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²⁾ 동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전공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ui Hyun Park, Graduate School of Dongshin University, 252, Daehodong, Naju, Chonnam, 520-714, Korea

E-mail : gpark25@hanmail.net

I. 서 론

청소년기는 발달적으로 외로움이 발생할 높은 위험성에 있는 시기이다. 외로움은 다른 시기에 비해 청소년기에 더 자주 발생한다(Brage & Meredith, 1993; Jong-Gierveld, 1987; Medora & Woodward, 1986; Peplau & Perlman, 1982). Russell과 Peplau(1978)는 외로움이란 의미 있는 사회적 연결망에서 제공될 수 있는 사회적 통합감이나 공동체감이 부족한 것에 대한 주관적 경험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불유쾌한 정서 상태가 개인 및 사회의 여러 가지 병리와 관련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적 외로움으로 개념화하였다. 이를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에 비추어 살펴봤을 때, 청소년기는 기존의 사회적 관계에서의 수용과 정서적 유대 외에 친밀감이라는 본연의 욕구가 부각되고(Sullivan, 1953), 새롭고 다양한 대인관계에 대한 강력한 친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기로서(Park & Doh, 1998) 또래관계 속에서 자신이 기대하는 최적의 수준과 실제 성취수준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할 때 청소년은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의 외로움은 청소년 부적응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온 연구들에서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Lyons, 2004). 외로움은 청소년의 비행과 반사회적 행동(Brennan & Auslander, 1979; Lyons, 2004), 불안과 우울(Moore & Schultz, 1983; Ohannessian et al., 1996), 섭식장애(Stewart, 2004), 심지어 자살과 자살에 대한 생각(Rokach, 2001)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외로움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과 적응을 위해 외로움과 관련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청소년 외로움의 원인은 부모, 가족, 또래와 친밀감을 충분히 형성하지 못하거나(Rew, 2002;

Uruk, & Demir, 2003), 대인관계에서나 사회적 관계 지지망의 부족 혹은 상실과 소속감의 부족 등이다(Russell, Peplau & Cutrona, 1980). 좀 더 구체적으로 Lee(1994)는 청소년기의 자녀는 부모의 기대와 과중한 성취압력으로 인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심한 부담감과 소외감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특히 핵가족화와 가족구성원 수의 감소는 자녀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를 증가하게 되어 부모와의 갈등을 심화시키며 이는 친구나 학교생활에서 직면하는 과중한 학업성취압력과 형식적인 대인관계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부담감과 소외감, 외로움을 경험하게 한다. Rice(2001)는 부모와 단절되어 있는 청소년들은 또래와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실패하여 고독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고, Sabatelli와 Anderson(1991) 또한 다른 행동발달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외로움은 부모자녀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청소년기에는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줄어들고 대신 또래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서적 지지를 해주는 등 부모가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 및 심리적 안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Weiss(1973)는 만족스러운 관계의 결핍 때문에 나타나는 사회적 외로움은 다른 사람들과 적절한 대인관계를 이루는 등 개인이 접근 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가 존재함으로써 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정적 발달을 초래하는 청소년기의 외로움에 대한 증가 혹은 감소 요인으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은 크게 작용한다.

한편 외로움은 성(性)에 따라 느끼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Medora와 Woodward(1986), Woodward와 Frank(1988)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하였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사회적 지지에 보다 더 크게 만족하고(Allen & Stoltenbeg, 1995), 여성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계 속에서 자기감(self-in-relation)을 형성하기에(Surrey, 1991), 타인과의 접촉이 상실되면 외로움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외로움에 대한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Lim & Rah, 2003; An & Kim, 2005)가 주로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여자 청소년의 외로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기로 가는 과도기로서 급격한 신체, 생리적 성숙이 이루어지며 인지적, 정서적으로도 많은 변화와 갈등을 겪게 되고, 나름대로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독립을 원하면서도 의지하고, 때로는 혼자 있거나 또래집단의 일원으로 행동하기도 하는 등 청소년들은 계속적으로 자기에 대한 정의를 찾아가는 탐색활동을 하게 된다. 자기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아개념과 자아가치감 등이 생겨나게 된다(Chung, 2004). Erikson(1950)은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아동 후기가 자아존중감 발달을 위한 중요한 시기임을 지적하였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아개념이 사회적 기준과 기대에 얼마나 잘 맞는지 그리고 얼마나 유능하게 그 기대와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지에 의해 스스로를 판단한다. 또한 Papalia 등(1989)은 청소년기 자신에 대한 견해는 성격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 자아상은 전 생애를 통한 성공과 행복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자기탐색과 대인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개념 중 자기 역량지각이 있다. 자기 역량지각은 하나의 포괄적인 개념으로써 다양한 자기평가적 요소들로 이루어진다. Harter(1982)는 전반적인 자기존중감과 구체적인 영역에 대한 자기 역량지

각을 구분하고 자기 가치감은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해 부여하는 총체적 가치’로서, 학업능력, 사회능력, 운동능력, 품행 및 외모 등의 세부적인 자기평가 영역을 포괄하는 상위의 자기평가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역량지각은 심리사회적 효능성과 적절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개념과 자기평가를 가지는 것은 청소년기의 긍정적인 발달에 매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자기평가에 기인한 역량지각과 관련하여 학업 및 사회적 능력 등의 유능성에 대한 측면에서 남아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최근의 연구들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학업능력과 사회적 능력은 전통적으로 남아들의 특성으로 여겨졌으나 점차 여아들에게 더 적극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Kindlon, 2007; Seevers, Dornedy & Clason, 1995; Ha & Park, 2011). 따라서 이러한 최근 연구 동향을 반영하여 부모자녀관계에서 여아들의 심리사회적 유능성의 자기 평가를 나타내는 역량지각의 특성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자기 역량지각은 사회적응과 대인관계를 예측해주는 요소로서 부모의 애정 어린 양육과 수용적인 분위기와 같은 가정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Choi, 1999). 애정과 적절한 통제를 갖는 부모 양육태도는 청소년기 자녀의 건강한 자아를 발달시키고,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밝혀졌다(Lee & Kim, 2005). 긍정적인 부모역할을 보여주는 경우 자녀는 자아존중감이 높고(Isberg et al., 1989), 자녀가 부모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지각할 때 자녀는 자신을 가치 있게 평가하고 높은 자아개념을 갖는다. 청소년기 부모양육행동을 통해 여자 청소년의 학업역량, 사회적 역량, 운동역량, 신체적 매력, 자기 품행 지각, 전반적 자아가치감 등

다양한 발달영역에서 심리사회적 기능의 효능성과 적절성을 검증하는 역량지각이 어떻게 인식되는 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렇듯 부모 양육행동은 청소년기 자녀의 사회적 외로움 및 역량지각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며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그동안 부모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양육행동은 다르게 나타나며 남아와 여아에 따라서도 동일한 부모 양육행동을 다르게 인식되고 있었다(Block, 1973; Baumrind, 1978; Schaefer, 1965; Lim, 2006). 또한 발달시기에 따라서도 부모 양육행동도 다르게 나타난다. 사춘기를 기점으로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청소년들은 가족관계를 다시 조율하거나 재정립하는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며(Hill & Palmquist, 1978), Chung (2004)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정서적 의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청소년이 부모와 갖는 관계는 아동기에 가졌던 부모와의 관계와는 다르다고 하였다. 청소년기의 급속한 신체적 성장은 부모의 체벌과 통제를 어렵게 만든다. 그 결과 부모의 권위는 도전을 받게 되고, 지금까지의 부모자녀관계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또한 인지발달로 인한 청소년기의 변화 또한 부모와의 갈등요소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발달특성과 중년기에 접어든 부모 특성 요인을 고려하여 적절한 양육행동을 갖는 것은 청소년기의 부모에게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그러나 Hur(2004)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발달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모의 양육행동을 연구하는데 있어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학대나 방치, 감독 등의 양육행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척도가 없고, 외국의 평가도구들을 그대로 번안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함으로써 한국적인 독특한 양육행동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을 지적하였다. 이에 타당한 부모 양육행동의 평가도구는 우리나라 부모들이 타 국가 부모에 비해 많이 나타낸다고 보여지는 과잉기대와 과잉간섭 등의 양육행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Hur(2004)의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는 감독, 합리적 설명,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임, 애정의 8가지 하위요인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보다 다요인 구조를 지니고 있어 청소년기 자녀에게 미치는 부모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 청소년기 자녀의 지각을 통해 부모 양육행동의 긍정적인 면 뿐 아니라 비밀관성, 학대와 방임 등 부정적이고 병리적인 양육행동 측면까지 평가할 수 있어 좀 더 실제적이고 타당한 연구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보고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가 있다(Kagan, 1971).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비교적 잘 대해주어도 자녀가 부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자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녀의 성장과 발달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Ka et al., 2008).

따라서 고등학교 시기의 딸이 지각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양육행동을 구분하여 청소년기 부적응적인 발달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외로움과 다양한 발달영역에서 심리사회적 기능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나타내는 역량지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청소년기 부적응 문제의 원인이 되는 외로움을 해소하고, 자아정체감의 형성시기인 청소년기에 긍정적인 자기 역량지각의 향상을 돕기 위한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에서 효과적인 부모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자녀관계에서 고등

학생 딸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이들을 지원하는 다각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고생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외로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여고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외로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여고생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역량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여고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역량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서울 지역에 위치한 인문계 고교와 전문계 고교 각각 2개교의 1, 2학년 여고생이다. 설문지는 총 400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그 중에서 한부모 가정의 자녀와 누락된 문항이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된 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301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01명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인문계 고교 50.5%, 전문계 고교 49.5%, 학년은 1학년이 52.2%, 2학년이 47.8%이었고, 학업성적은 상위권 15.3%, 중위권 55.8%, 하위권 28.9%로 응답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학력은 대학원 이상 11.3%, 대학 졸업 45.2%, 고등학교 졸업 39.8%, 중학교 졸업 이하 3.7%이었고,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원 이상 6.5%, 대학 졸업 36.2%, 고등학교 졸업 53.2%, 중학교 졸업 이하가 4.1%이었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중이 55.8%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하가

31.2%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부모 양육행동

여고생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Hur(2004)가 제작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감독, 합리적 설명,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임, 애정의 8개 하위요인 총 43문항을 사용하였다. ‘감독’은 자녀의 학교 내외의 생활이나 교우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합리적 설명’은 자녀의 행동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를 갖고 있고, 이를 일관적이되 애정적인 방식으로 주장하고, 이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보상이나 혼욕적인 처벌이 포함된다. ‘비밀관성’은 자녀에 대해 혼욕의 기준에 일관성이 없는 태도로서 상황에 따라 다른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태도로 정의되며, ‘과잉기대’는 자녀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기대수준을 갖는 태도로서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지적인 성공을 강조하는 태도이다. ‘과잉간섭’은 자녀의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서 까지 지나치게 관여하고 간섭하는 태도로서, 자녀의 흥미나 독립성을 고려하지 않고 어른의 기준에 무조건 맞추도록 요구하고 자녀의 행동에 대해 불안해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학대’는 의도적으로 자녀에게 해를 주고 신체적 손상이라는 결과가 남는 양육자에 의해 취해지는 행위와 그 결과로서 자녀의 행동과 상관없이 과도하거나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방임’은 자녀의 신체적, 지적인 측면에서부터 도덕적, 영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양육행동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마지막으로 ‘애정’은 자녀에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나타내며 자녀 중심적이면서 자녀를 존중, 수용해주고, 자녀의 요구에 민감한 태도로 정의된다. 본 척도는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Likert 방식으로 각 하위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각된 양육행동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별하여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아버지 양육행동이 .63~.91로 나타났고 어머니 양육행동은 .59~.85로 나타났다.

2) 외로움

여고생의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하여 Russell, Peplau와 Cutrona(1980)가 제작한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을 Park과 Doh(1998)가 청소년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총 문항 수는 20문항으로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 여부에 관해 각각 10문항씩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Likert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외로움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93으로 나타났다.

3) 역량지각

여고생의 심리사회적 기능의 효능성과 적절성을 검증하는 역량지각의 측정을 위해 Harter (1982)에 의해 개발된 역량지각 척도(Harter's Perceived Competence Scale : PCS)를 Lee(1994)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역량지각 척도는 학업성취를 강조한 ‘학업역량’, 또래와의 ‘사회적 역량’, 운동을 잘하며 쉽게 배우는 ‘운동역량’, 외모에 대한 ‘신체적 매력’, 긍정적 자기행동 지각을 나타내는 ‘품행’, 자신감이 있고, 자신이 좋

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전반적 자아가치’의 6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하위 영역들을 스스로 얼마나 지각하고 있는지를 보고 하게 하는 것으로 총 36문항이고 각 하위영역별로 6문항씩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양식은 구조화된 대안방식을 취하는데 4점 척도 점수로 표시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자기역량 평가를 나타낸다. 응답방식은 각 문항에 대해 먼저 응답자가 A와 B 유형 중 어느 유형이 자신과 더 유사한 지 판단하게 한 다음, 다시 한 번 ‘나와 정말 똑같다’와 ‘나와 비슷한 편이다’ 중에서 하나를 더 고르게 한다. 전체 및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64~.81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400명의 여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동의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나누어주고 직접 설문지에 기입하도록 한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그 중에서 한부모 가정의 자녀와 누락된 문항이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된 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여 총 301부가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AS 통계프로그램(Ver 9.1)을 통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인 부모의 양육행동, 외로움 및 역량지각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를 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여고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이 청소년기 외로움과 역량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구분하여 여고생의 외로움과 역량지각에 대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으나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독립변인간의 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종속변인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할 때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COLLIN을 사용하여 eigen value, condition number와 variance proportion의 수치를 알아본 결과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독립변인이 없었으며, 분산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을 구하였으나 그 값이 10미만인 1.02~2.38로 나타나 독립변인에 대해 중다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여고생이 지각한 아버지 양육행동이 청소년기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여고생의 외로움에 대해 지각된 아버지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1과 같다. 지각된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여고생의 외로움에 대해 28%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아버지 양육행동의 감독($\beta = -.24, p < .001$), 합리적 설명($\beta = -.21, p < .001$), 비밀관성($\beta = .17, p < .001$), 과잉간섭($\beta = .11, p < .05$), 학대($\beta = .14, p < .01$), 방임($\beta = .15, p < .01$)과 애정($\beta = -.31, p < .001$) 등 과잉기대를 제외한 7개 하위영역에서 외로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고생이 아버지의 감독, 합리적 설명, 애정 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외로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밀관성, 과잉간섭, 학대와 방임 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외로움을 더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 Effects of perceived father's Parenting Behaviors on Loneliness

Predictors	Dependent variable	
		Loneliness
Father's rearing behaviors	Monitoring	-.24***
	Reasoning	-.21***
	Inconsistency	.17***
	Over-expectation	.06
	Intrusiveness	.11*
	Physical abuse	.14**
	Neglect	.15**
	Affection	-.31***
Ad-R ²		.28
F		18.63***

* $p < .05$. ** $p < .01$. *** $p < .001$.

2. 여고생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행동이 청소년기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여고생의 외로움에 대해 지각된 어머니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2와 같다.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여고생의 외로움에 대해 26%의 설명

<Table 2> Effects of perceived mother's parenting behaviors on loneliness

Predictors	Dependent variable	
		Loneliness
Mother's rearing behaviors	Monitoring	-.19***
	Reasoning	-.18***
	Inconsistency	.20***
	Over-expectation	.05
	Intrusiveness	.17***
	Physical abuse	.15**
	Neglect	.25***
	Affection	-.28***
Ad-R ²		.26
F		16.24***

** $p < .01$. *** $p < .001$.

력을 나타내었다. 어머니 양육행동의 감독($\beta = -.19, p < .001$), 합리적 설명($\beta = -.18, p < .001$), 비밀관성($\beta = .20, p < .001$), 과잉간섭($\beta = .17, p < .001$), 학대($\beta = .15, p < .01$), 방임($\beta = .25, p < .001$)과 애정($\beta = -.28, p < .001$) 등 과잉기대를 제외한 7개 하위영역에서 외로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고생이 어머니의 감독, 합리적 설명, 애정 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외로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밀관성, 과잉간섭, 학대와 방임 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외로움을 더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3. 여고생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역량 지각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여고생의 역량 지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3과 같다. 먼저 지각된 아버지 양육행동은 여고생의 학업역량 지각에 대해 26%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아버지

의 양육행동 중 감독행동($\beta = .22, p < .01$)은 학업역량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여고생은 아버지 감독행동이 높다고 지각될수록 학업역량 지각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각된 아버지 양육행동은 여고생의 사회적 역량 지각에 대해 16%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지각된 아버지의 애정행동($\beta = .29, p < .001$)은 여고생의 사회적 역량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여고생은 아버지의 애정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사회적 역량에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셋째, 지각된 아버지 양육행동은 여고생의 운동역량 지각에 대해 13%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아버지의 애정행동($\beta = .28, p < .001$)은 여고생의 운동역량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여고생은 아버지의 애정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운동역량에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넷째, 지각된 아버지 양육행동은 신체적 매력에 대해 12%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아버지 양육행동의 애정행동($\beta = .27, p < .01$)은 여고생의 신체적 매력에 유의한

<Table 3> Effects of perceived father's parenting behaviors on perceived self-competence

Predictors	Dependent variables	Perceived self-competence					
		Scholastic competence	Social competence	Athletic competence	Physical attractiveness	Conduct behavior	General self-worth
Father's rearing behaviors	Monitoring	.22**	.08	.06	.05	.34***	.08
	Reasoning	.08	.04	-.06	-.03	-.03	.11*
	Inconsistency	-.08	-.08	.04	.01	.02	-.11*
	Over-expectation	.08	-.06	-.02	-.02	.03	-.12*
	Intrusiveness	.06	-.02	-.02	-.02	-.08	-.14*
	Physical abuse	.09	-.08	.08	-.09	-.21**	-.06
	Neglect	-.08	-.06	-.02	.02	-.06	-.23**
	Affection	.08	.29***	.28***	.27**	.23**	.34***
	<i>Ad-R²</i>	.26	.16	.13	.12	.21	.29
<i>F</i>	8.57***	4.53***	4.25***	3.23**	5.25***	9.63***	

* $p < .05$. ** $p < .01$. *** $p < .001$.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여고생이 아버지의 애정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신체적 매력에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다섯째, 지각된 아버지 양육행동은 품행 지각에 대해 21%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아버지의 감독($\beta = .34, p < .001$), 학대($\beta = -.21, p < .01$)와 애정($\beta = .23, p < .01$)은 여고생의 품행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아버지의 감독과 애정 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품행 지각에 긍정적이었고, 아버지의 학대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자기 품행에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 여섯째, 지각된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여고생의 전반적 자아가치 지각에 대해 29%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아버지의 합리적 설명($\beta = .11, p < .05$), 비밀관성($\beta = -.11, p < .05$), 과잉기대($\beta = -.12, p < .05$, 과잉간섭($\beta = -.14, p < .05$), 방임($\beta = -.23, p < .01$), 애정($\beta = .34, p < .001$)은 전반적 자아가치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합리적 설명과 애정 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여고생의 전반적 자아가치도 높게 인식되었고,

아버지의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방임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여고생의 전반적 자아가치는 부정적으로 지각되었다.

4. 여고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역량 지각에 미치는 영향

여고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역량 지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다. 먼저 지각된 어머니 양육행동은 여고생의 사회적 역량 지각에 대해 13%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애정행동($\beta = .16, p < .05$)은 사회적 역량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여고생은 어머니의 애정행동이 높다고 지각될수록 사회적 역량 지각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여고생의 품행 지각에 대해 14%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어머니의 감독($\beta = .13, p < .05$), 학대($\beta = -.22, p < .01$)와 애정($\beta = .16, p < .05$)

<Table 4> Effects of perceived mother's parenting behaviors on perceived self-competence

Predictors	Dependent variables	Perceived self-competence					
		Scholastic competence	Social competence	Athletic competence	Physical attractiveness	Conduct behavior	General self-worth
Father's rearing behaviors	Monitoring	.04	.05	.01	.01	.13*	.02
	Reasoning	.02	.05	-.02	-.02	.04	.14*
	Inconsistency	-.01	-.07	.05	.01	-.02	-.11*
	Over-expectation	.07	-.04	-.01	-.01	.03	-.12*
	Intrusiveness	.06	.02	.02	-.02	-.08	-.13*
	Physical abuse	.10	-.05	.08	-.06	-.22**	-.04
	Neglect	-.09	-.07	-.02	.02	-.06	-.19**
	Affection	-.07	.16*	.02	.02	.16*	.22**
Adj-R ²	.11	.13	.07	.06	.14	.17	
F	3.26**	4.25***	2.50**	2.23*	4.72***	5.66***	

* $p < .05$. ** $p < .01$. *** $p < .001$.

행동은 여고생의 품행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어머니의 감독과 애정 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품행 지각에 긍정적이었고, 어머니의 학대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품행에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 셋째,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여고생의 전반적 자아가치 지각에 대해 17%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어머니의 합리적 설명($\beta = .14, p < .05$), 비밀관성($\beta = -.11, p < .05$), 과잉기대($\beta = -.12, p < .05$), 과잉간섭($\beta = -.13, p < .05$), 방임($\beta = -.19, p < .01$), 애정($\beta = .22, p < .01$)은 전반적 자아가치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합리적 설명과 애정 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여고생의 전반적 자아가치도 높게 인식되었고, 어머니의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방임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여고생의 전반적 자아가치는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여고생의 학업역량, 운동역량, 신체적 매력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변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여고생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에서의 외로움과 심리사회적 기능의 효능성과 적절성을 보여주는 역량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에 따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고생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청소년기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아버지 양육행동은 과잉기대를 제외한 감독, 합리적 설명, 비밀관성, 과잉간섭, 학대, 방임, 애정의 7개 하위요인에서 여고생의 외로움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고생이 아버지의 감독, 합리적 설명, 애정 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외로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밀관성, 과잉간섭, 학대와 방임 행동이 높을수록 외로움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고생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청소년기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외로움에 대해 아버지 양육행동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감독, 합리적 설명, 애정 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외로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밀관성, 과잉간섭, 학대와 방임 행동이 높을수록 외로움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외로움을 덜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 Brage와 Meredith(1993), Lim과 Rah(2003)의 연구와 부모자녀 관계가 긍정적이며, 칭찬과 격려를 해주며 애정을 표시하는 온정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이 외로움을 덜 느끼다고 보고한 Doh(1996)의 연구결과와도 매우 유사하다. 또한 부모양육태도가 적대적일수록 자녀의 외로움이 높아지고(Lee, 2001), 아버지의 과잉통제 및 제한이 높을수록 자녀가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고 보고한 Woo와 Park(2001)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부정적이고 불만족스러운 부모자녀관계는 청소년의 외로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하였고(Sabatelli & Anderson, 1991; Hojat, 1982), Sohn 등(2001)이 부모의 높은 과잉간섭과 낮은 애정 및 방임 등은 청소년의 다양한 문제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양육행동이라고 지적한 바와 같이, 부모 모두의 비밀관성, 과잉간섭, 학대와 방임 행동은 청소년 부적응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는(Lyons, 2004), 여고생의 외로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둘째, 여고생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행동

이 역량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여고생은 아버지 감독행동이 높다고 지각될수록 학업역량에 긍정적으로 지각하였고, 아버지의 애정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사회적 역량, 운동역량, 신체적 매력에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감독과 애정 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품행 지각에 긍정적이었고, 아버지의 학대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자기 품행에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 마지막으로 여고생은 아버지의 합리적 설명과 애정 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여고생의 전반적 자아가치감도 높게 인식되었고, 아버지의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방임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여고생의 전반적 자아가치감은 부정적으로 지각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버지가 적절한 애정과 수용을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대할 때 딸의 학업 및 사회적 능력이 발달한다는 보고(Baumrind, 1978; Biller, 1981; Steinberg, 2001)와 유사하다. 청소년기 부모의 양육행동이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조사한 연구(Fulton & Turner, 2008)에 의하면, 여학생은 부모가 온정적이며 관리감독을 하였다고 회고할 때 학업수행에 대한 통제력을 지각하는 수준이 높아지고, 그 결과 학업성적이 높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감독행동과 유사한 양육행동인 관심과 가르침 행동이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Lim, 2006)는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맥락이다. 특히 이러한 연구결과는 Song과 Hyun(2006)이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자녀교육과 자녀 부양에 참여하며 역할수행에 긍정적인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의 신뢰성, 지도성, 안정성과 사교성 등 사회성과 긍정적인 관계를 지닌다고 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여고생은 아버지의 애정행동이 높다고 지각

할수록 신체적 매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Collins(1991)의 연구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다 발달시기상 외모에 초점을 두게 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있어 부모로부터 제시되는 외모관련 기준이나 가치를 얼마나 수용할 것인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신체적 매력에 대한 기준은 청소년의 부모를 통해 명시적으로 또는 잠재적으로 전달되고 그에 따라 청소년은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대한 어떤 기대를 형성하고 그에 맞추어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의 수용적이고 애정적인 행동을 통해서 전달되는 자신의 긍정적인 외모에 대한 평가가 외모에 민감한 시기인 고등학생의 딸은 자신의 신체적 매력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Kaplan 등(1998), Cicchetti와 Troth(1995), Lewis(1992), Rey와 Plapp(1999), Sohn 등(2001)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비행 및 품행장애 등은 일반가정의 자녀보다 학대가정에서 더 자주 발생되며, 애정과 수용을 지닌 양육태도를 지닌 가정에서는 청소년의 비행동 등 부정적 발달이 적다고 보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버지의 학대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품행 지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감독과 애정행동이 높은 경우 품행에 긍정적으로 지각한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Forehand 등(1997)과 Wasserman 등(1996)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품행장애와 비행 치료에 부모의 감독이 효과적이라는 보고는 본 연구결과와 부합한다. 또한 Park(1995)은 우리나라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자존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서양의 양육행동 연구 결과와 달리 여아들의 자존감이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딸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

다. 이는 지각된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고등학생 딸의 전반적 자아가치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지지할 수 있다.

셋째, 여고생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행동이 역량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여고생은 어머니의 애정행동이 높다고 지각될수록 사회적 능력 지각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감독과 애정 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품행 지각에 긍정적이었고, 어머니의 학대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자기행동에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합리적 설명과 애정 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여고생의 전반적 자아가치도 높게 인식되었고, 어머니의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방임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여고생의 전반적 자아가치는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Lim(2006)이 어머니의 관심행동과 같은 긍정적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가르침과 관심행동이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과 유사하다. 또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학대 행동이 여고생의 품행에 대해 부정적인 지각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이는 Kaplan 등(1998), Cicchetti와 Troth(1995), Lewis(1992), Rey와 Plapp(1999), Sohn 등(2001)의 연구에서 학대와 같은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비행 및 품행 장애를 가져오게 한다는 보고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어머니의 온정이나 애정은 자녀의 자존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들에서 어머니의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태도(Kim & Kang, 1999; Doh & Choi, 1998; Eaton, 1997)는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부모의 거부, 제재, 통제, 냉담 등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자아개념이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Park, 1995)와도 매우 유사한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부모 모두의 감독, 합리적 설명과 애정 행동은 여고생의 외로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비일관성, 과잉간섭, 학대와 방임 행동은 여고생의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외로움을 가중시키는 부정적인 양육행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모 모두 감독, 합리적 설명, 애정 행동과 같은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여고생의 다양한 발달 영역에서 자기 역량을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을 돕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부모의 애정행동은 여고생의 사회적 역량, 품행 지각과 전반적 자아가치감 등 다양한 영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 모두의 학대 행동은 품행 지각에 부정적인 발달을 가져오며, 부모의 감독과 애정은 품행 지각에 긍정적인 도모를 가져올 수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임이 분명히 재확인되었다. 또한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방임 행동 등은 여고생의 전반적 자아가치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육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Lee와 Kim(2005)의 연구에서와 같이 부모의 애정과 적절한 통제는 청소년의 건강한 자아를 발달시키고,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보다 아버지의 감독 및 애정과 같은 긍정적 양육행동이 고등학생 딸의 역량지각에 더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능력적인 평가 측면에서 그동안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강조하는 연구풍토에서 딸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을 대한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아버지의 감독과 같은 양육행동은 학업능력과 품행 지각을 긍정적으로 돕고 아버지의 애정행동은 대인관계능력과 신체 및 운동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남으로 어머니 보다 아버지의 애정행동이 딸

의 다양한 측면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부모의 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과 같은 적절한 양육행동은 부적응의 주요 원인이 되는 외로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다양한 청소년기 문제행동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자아정체감의 형성시기인 청소년기에 자아가치감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자기능력을 평가하는데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장면에서 여고생의 긍정적인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부모 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특히 아버지와 청소년기 딸의 관계에 대해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며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와 딸에 대한 아버지 교육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여고생과 그 부모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이들을 지원하는 다각적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그에 따른 후속 연구가 활발하게 시행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 양육행동 척도에 있어 어머니 양육행동의 하위요인 중 비밀관성의 내적일치도가 .59로 나타나 보통 .60 이상이 되었을 때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기준치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과 본 연구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 서울지역만을 표집한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 될 수 있다.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의 비밀관성 요인은 Hur(2004)가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당시에도 내적 일치도가 .67로 타 하위요인에 비해 다소 낮게 측정되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해당요인의 문항 재검증 등 신뢰도 보완이 요구되며, 연구대상의 선정에 있어서도 좀 더 다양한 지역에서 표집하여 연구대상의 대표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Allen, S. F., & Stoltenberg, C. D. (1995). Psychological separation of older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from their parents : An investigation of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3*, 542-546.
- An, S. O., & Kim, Y. H. (2005). Family system and male adolescents' lonelines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12), 165-182.
- Baumrind, D. (1978). Reciproc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parent child relations. *Journal of Social Issues, 34*, 179-189.
- Billar, H. B. (1981). *The father and sexrole development*.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2nd ed.). NY : Wiley.
- Block, J. H. (1973). Conceptions of sex roles : Some cross cultural and longitudin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28*, 512-526.
- Brage, D., & Meredith, W. (1993). Correlates of loneliness among midwestern adolescents. *Adolescence, 28*, 685-694.
- Brennan, T., & Auslander, N. (1979). *Adolescent loneliness : An exploratory study of social and psychological predispositions and theory* (vol. 1.). Bethesda, MD :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Juvenile Problem Division.
- Choi, Y. H. (1999). The perceived competence of children and the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 Comparative study for urban and

- rural areas. *The study of social science*, 9, 303-316.
- Chung, O. B. (2004). *Developmental psychology*. Seoul : Haksisa.
- Cicchetti, D. & Troth, S. L. (1995).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on child abuse and neglect. *Journal of Am Acad Child adolescence Psychiatry*, 34, 541-565.
- Collins, M. E. (1991). Body figure perceptions and preference among preadolescence child.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10, 199-208.
- Doh, H. S. (1996). Loneliness in Early Adolescence : Relationships to peer experiences and attachment to parents. *Th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0(3), 33-49.
- Doh, H. S., & Choi, M. K. (1998). The relations of maternal child rearing behaviors and peer experiences to children's self - Esteem. *Th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19(2), 19-33.
- Eaton, M. (1997). Positive discipline : fostering the self-esteem on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 53(6), 43-46.
- Erikson, E. H. (1950). *Childhood and society*. NY : Norton.
- Forehand, R., Miller, K. S., Dutra, R., & Chance, M. W. (1997). Role of parenting in adolescent deviant behavior : replication across and within two ethnic groups. *Journal of Consult Clinic Psychology*, 65, 1036-1041.
- Fulton, E., & Turner, L. A. (2008). Students' academic motivation : relations with parental warmth, autonomy granting, and supervision. *Educational Psychology*, 28(5), 521-534.
- Ha, S. J. & Park, S. Y. (2011). Fathers' parenting attitudes predicting girl's level of competence : gender-role stereotypes and internal motivation as mediators.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18(1), 133-149.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1), 87-97.
- Hill, J., & Palmquist, W. (1978). Social cognition and social relations in early adolesc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 1-36.
- Hojat, M. (1982). Loneliness as a function of parent-child and peer relation. *Journal of psychology*, 112, 129-133.
- Huh, M. Y. (2004). A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ventory for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2(2), 170-189.
- Isberg, R. S., Hauser, S. T., Jacobson, A. M., Powers, S. I. (1989). Parental contexts of adolescent self-esteem : A developmental perspective. *Psychosocial Developmental psychology*, 10, 67-72.
- Jong-Gierveld, J. (1987). Developing and testing a model of lonel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119-128.
- Ka, Y. H., Cho, M. J., & Lim, S. W.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rearing attitudes, self-esteem and subjective well-being.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6(4), 31-42.

- Kagan, J. (1971). *Personality development*. NY : Harcourt Brace Jovanovich.
- Kaplan, S. J., Pelcovitz D., Salzinger, S., Weiner, M., Mandel, F. S., Lesser, M. L., Labruna, V. E. (1998). Adolescent physical abuse : risk for adolescent psychiatric disorders. *Am Journal of Psychiatry*, 155, 954-959.
- Kim, J. U., & Kim, Y. H. (2009).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n adolescents' lonelines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0(4), 2287-2301.
- Kim, M. H., & Kang, M. H. (1999). Relevant variables of children's self - esteem : Analysis of the causal model. *Th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0(4). 195-211.
- Kindlon, D. (2007). *Alpha Girls : Understanding the New American Girl and How She is Changing the World*. (Choi, J. S.) Seoul : Miraebok.
- Lee, J. H., & Kim, K. W. (2005). A study of mediating variables on the effect of amount of internet use in internet addiction disposition.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3(2), 15-32.
- Lee, M. S. (1994). The effects of temperament and peer-support on the self-evaluation of early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Korea.
- Lee, S. S. (2001). The Pelationship between the child's perception of the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and his loneli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orea.
- Lee, Y. M. (1994). A study on stress and cognitive appraisal of adolescents : The focus on middle and high school pupils in Kwang-ju.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orea.
- Lewis, D. O. (1992). From abuse to violence : psycho-physiological consequences of maltreatment. *Journal of Am Acad Child adolescence Psychiatry*, 31(3), 383-391.
- Lim, J. H. (2006). Relationships between korean parenting and adolescents' developmental outcomes on self-esteem and social responsibility.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3(1), 135-151.
- Lim, Y. J., Rah, Y. M. (2003). The Links between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elf-Esteem and Loneliness i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5(2), 61-69.
- Lyon, J. B. (2004). *Family systems,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r, and loneliness : A test of mediating and moderating models*. NY : New York University Press.
- Medora, N., & Woodward, J. (1986). Loneliness among adolescent college students at a midwestern university. *Adolescence*, 21, 391-402.
- Moore, D. & Schultz, N. R. (1983). Loneliness and adolescence : Correlates attribution and coping.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2, 95-100.
- Ohanessian, C. M., Lerner, R. M., Lerner, J. V. & von Eye, A. (1996). Direct and indirect relations between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 perceptions of the self and emotional adjustment during early adolescence. *Family and Consumer science Research Journal*, 25, 159-183.

- Papalia, D. E., Olds, S. W., & Feldman, R. D. (1989). Human development. NY : McGraw-Hill.
- Park, S. Y., & Doh, H. S. (1998). The Relations between Family Functioning and Self - Esteem and Loneliness in Adolescents. *Th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19(1)*, 229-244.
- Park, Y. Y. (1995). Relationship between child rearing behavior and sibling relationships and children's self-estee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Korea.
- Peplau, L. A., & Perlman, D. (1982). *Perspectives on loneliness*. In L. A. Peplau & D. Perlman (Eds.), *Loneliness :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351-378). NY : Wiley & Sons.
- Rew, L. (2001). Relationships of sexual abuse, connectedness, and loneliness to perceived well-being in homeless youth, *JSPN, 7(2)*, 51-63.
- Rey, J. M. & Plapp, J. M. (1990). Quality of perceived parenting in oppositional and conduct disordered adolescents. *Journal of Am Acad Child adolescence Psychiatry, 29*, 382-385.
- Rice, F. P. (2001). *The Adolescent : Development, Relationship, and Culture*. Chung, (Y. S., Sin, M. S. & Seol, I. J.) Seoul : Sigma press.
- Rokach, A. (2001). Criminal offense type and cause of loneliness. *The Journal of Psychology, 135(3)*, 277-291.
- Russell, D., & Peplau, L. A. (1978). Developing a measure of lonel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2*, 290-294.
- Russell, D., Peplau, L. A., & Cutrona, C. E. (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472-480.
- Sabatelli, R. M., & Anderson, S. A. (1991). Family system dynamics, peer relationships, and adolescents' psychological adjustment. *Family Relations, 40*, 363-369.
- Schaefer, E. S. (1965). A Configurational analysis of children's reports of parent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 552-557.
- Seevers, B. S. Dormody, T. J. Clason, D. L. (1995), Developing a scale to research and evaluate youth leadership and life skills development.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36(2)*, 28-35.
- Sohn, S. H., Noh, K. S., Huh, M. Y., Jung, H. O., Lee, S. H., & Kim, S. J. (2001). A study of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and parenting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0(4)*, 605-615.
- Song, Y. H., & Hyun, O. K. (2006). Children's sociality and perceptions of fathering practice in middl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Th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7(5)*. 19-34.
- Steinberg, B. S. (2001). The making of female presidents and prime ministers : the impact of birth order, sex of siblings, and father-daughter dynamics. *Political Psychology, 22(1)*, 89-110.
- Stewart, W. (2004). The role of perceived loneliness and isolation in the relapse from

- recovery in patients with anorexia and bulimia nervosa.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32(2), 185-362.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Y : Norton.
- Surrey, J. L. (1991). The self-in-relation : A theory of women's development. In J. V. Jordan, A. I. Kaplan, J. B. Miller, I. P. Stiver, & J. L. Surrey *Women's growth in connection : Writings from the Stone Center* (pp. 51-66). NY : Guilford Press.
- Uruk, A. C., & Demir, A. (2003). The role of peers and families in predicting the loneliness level of adolescents. *The Journal of Psychology*, 137(2), 179-193.
- Wasserman, G. A., Miller, L. S., Pinner, E., & Jaramillo, B. (1996). Parenting predictors of early conduct problems in urban, high-risk boys. *Journal of Child Adolescence Psychiatry* 35, 1227-1236.
- Weiss, R. S. (1973). *Loneliness : The experience of emotional and social isolation*. MA : MIT Press.
- Wilson, H. (1987). Parental supervision re-examined.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27, 275-301.
- Woo, M. J., & Park, I. J. (2001). Articles :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 - Perceived Parent - Child Bonding Type in Early Stages, Family Functioning, and Children's Loneliness. *The Korean Family Welfare Association*, 6(2), 25-43.
- Woodward, J. C., & Frank, B. D. (1988). Rural adolescent loneliness and coping strategies. *Adolescence*, 23, 559-565.

2011년 10월 31일 투고, 2012년 1월 16일 수정
2012년 3월 25일 채택